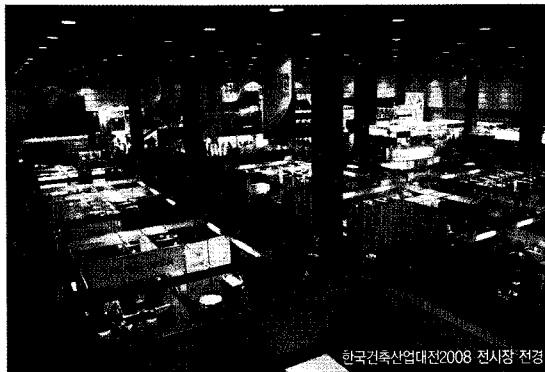


한국건축산업대전 2008 참가업체 탐방

(주)엠&이 종합건축사사무소 AUM&LEE ARCHITECTS ASSOCIATES



한국건축산업대전2008 전시장 전경

지난 2008년 10월 7일부터 11일까지 5일간 서울 코엑스 태평양홀에서는 대한건축사협회와 한국경제TV가 공동 주최한 '한국건축산업대전2008' (Korea Architecture Fair & Festival)이 '건축, 삶의 터를 디자인하다'란 주제로 성대하게 개최됐다.

한국건축산업대전은 건축, 문화, 도시, 환경, 디자인이 어우러지는 건축전문전시회로 개최 3회만에 대한민국 최고의 건축전문전시회로 자리 잡았다.

주목할 점은 2008년 전시회는 물론 지난 2006년, 2007년 전시회에도 상당수의 건축사사무소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자사 홍보와 함께 일반관람객에게 건축사와 건축사사무소의 업무에 대해 보다 깊이 이해시켜 건축사와 건축사사무소의 위상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본지는 그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한국건축산업대전에 참여하여 한국 건축산업 발전과 건축사와 건축

사사무소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한 건축사사무소를 고루하고 참여를 확대 시키고자 특집을 마련해 연재한다.

- 편집자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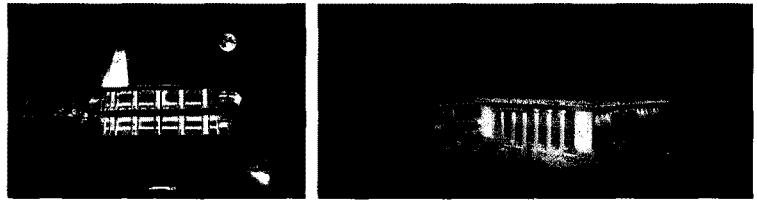
(주)엠&이 종합건축사사무소는 엄덕문과 이희태라는 1세대 원로에 의해 60여년전 설립되어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건축사사무소 중 하나로 현재 약 270여명의 직원들이 그 명맥을 계승해 나가고 있다.



창립 스토리 : 창립부터 현재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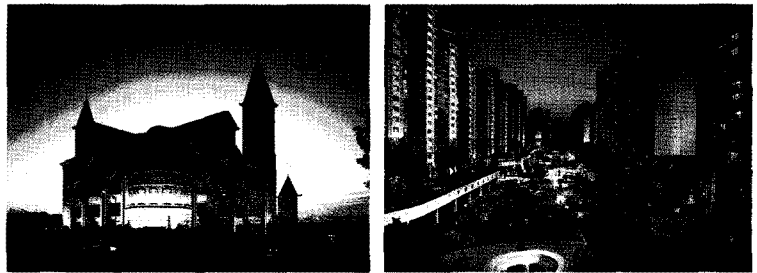
제1기(1948~1978) : 엄덕문, 이희태 시대

정규학력도 없고 체계적인 건축교육을 받은 일도 없지만, 천재적인 건축디자인 능력을 스스로 터득하여 사후 20여년이 지나 최고의 성당건축상을 수상한 '절두산 성당'을 설계한 이희태 선생과 일본 와세다에서 현대건축을 공부하여 한국적인 현대건축의 조형미를 본격적으로 시도한 '세종문화회관'을 설계한 엄덕문 선생 두 분이 의기투합하여 창립한 엄이건축으로 시작하였다.



제2기(1979~1993) : 이각표, 서상하, 이근창, 조익수 시대

이후 이희태 선생은 56세로 일찍 작고하시고 연로하신 엄덕문 선생으로부터 회사를 물려받은 이각표, 서상하, 이근창, 조익수 등이 '멋있는 인품에서 창조되는 좋은 작품'이라는 회사사훈을 이어받아 회사를 성장시켜왔다. '분당성당', '도곡동 캐슬렉스 아파트단지', '교보빌딩', '롯데호텔' 등이 이들에 의해 설계되었다.



제3기(1994~2009 현재) : 이관표, 김영찬, 문영학, 이 민 시대

1990년대 대형화, 첨단화되는 설계추세에 부응하여 회사운영을 이어받은 이관표, 김영찬, 문영학, 이 민 등이 참여하면서 '에버랜드 캐리비안 베이', 'KT 여의도사옥', '하이마트 본사사옥', '메이필드호텔', '동남권 이주상가단지', '천안 종합문화예술회관' 충남도청 및 의회청사, '서울가정행정법원청사' 등을 설계해오면서 회사규모가 매년 확대되고 있다.

기업 이념 및 Vision

한국동신 여의도사옥 '2004 한국건축문화대상 본상 수상'



'기능이 없는, 디자인을 위한 디자인은 미를 위한 미. 즉 허미이기에 접 하나라도 기능과 무관한 것은 추한 결과가 된다'는 엄덕문 선생의 디자인 철학을 바탕으로, 도시의 일부인 건물이 외부적으로는 주위의 환경과 조화되면서 내부적으로는 생활하기에 편리하고 편안한 건물이 되도록 설계하는 것을 모토로 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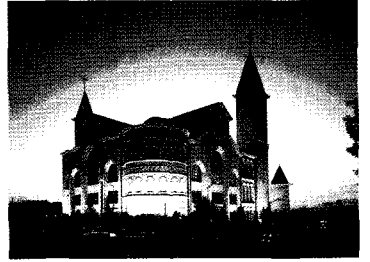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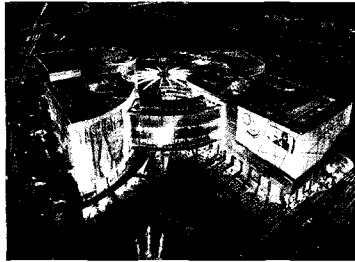
- 1948.10 엄덕문 건축연구소 설립
- 1994.01 (주)엄&이 종합건축사사무소로 법인전환
- 1996.04 필리핀지사 설립
- 2004.11 한국건축문화대상 본상 수상
- 2005 일본지사 설립
- 2006.10 한국건축문화대상 본상수상
- 2007 수단지사, 베트남지사 설립



주력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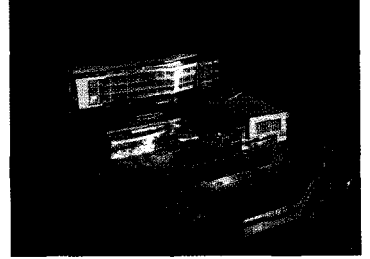
· 대형건축물 설계

- 대형 업무용지대
- 대형상업용
- 공공시설
- 시설물·상업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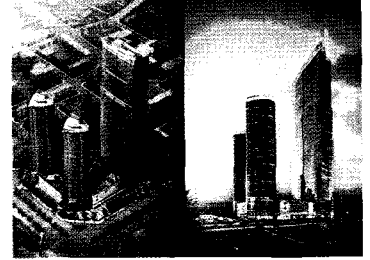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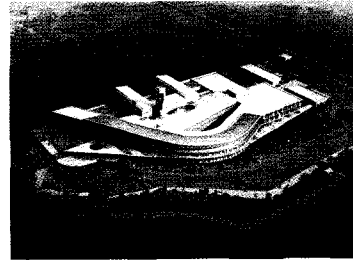
· 특수 건축물

- 테마파크
- 민자사업



· 해외설계

- 문화시설
- 학교시설
- 스포츠시설
- 교육·문화시설



최근 사업 성과

- 2009 파라마운트 데마파크
- 2009 영종브로드웨이 개발사업
- 2008 충주의료원 이전신축 임대형민자사업 당선
- 2008 베트남 Danang Sports Hall 당선
- 2008 충청남도 도본청 및 의회청사 건립 아이디어(최우수상)
- 2008 천안종합문화예술회관 임대형 민간투자시설사업 당선
- 2007 연세대학교 : 연세송도국제화복합단지 당선
- 2007 서울 가정·행정법원 당선
- 2007 경남 하노이 밀레니엄파크 당선



충주의료원 이전신축 임대형민자사업(6T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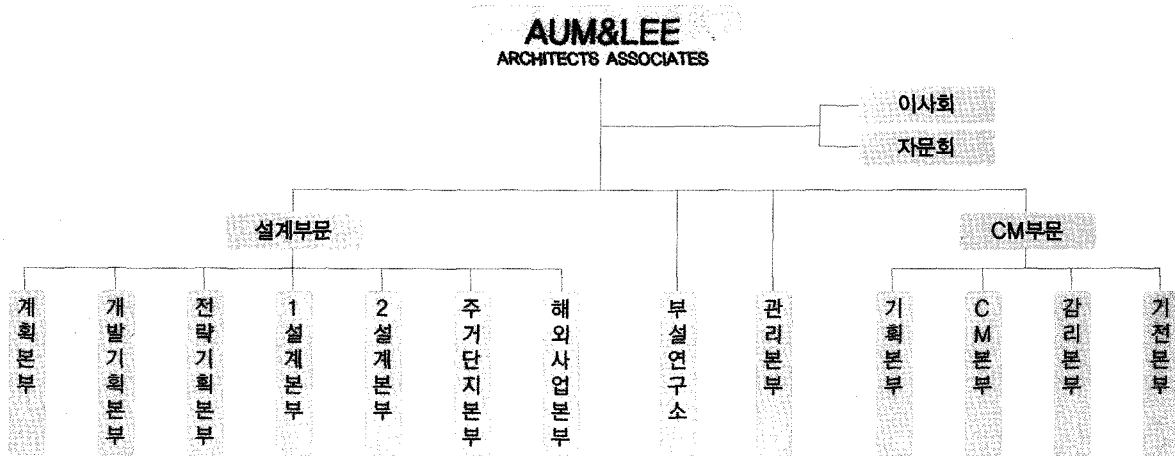


충청남도 도본청 및 의회청사 건립 아이디어 공모전(최우수상)



서울 가정·행정법원(현상설계 당선)

조직도 및 임원진 소개



엄덕문 / 고문

1960. 엄덕문 건축연구소 창설
1980. 석탑 산업훈장 수여(세종문화회관)
1996. 제21회 대한민국 문화예술상
1996. 옥관 문화훈장 수여



이관표 / 사장

2001~. 서울시 건축심의위원
2004. 한국건축문화대상 분상
2005. 정보통신부 장관 표창
2007. 행정자치부 장관 표창



서상하 / 부회장

1973. (주)에이 건축연구소 재직
2003~ (주)에이건축 부회장



김영찬 / 부사장

1990~ (주)에이건축 부사장
2000. 강원도 우수건축물 비주거부문 특별상
2004. 태백시장 표창
2006. 경상북도지사 표창



이민 / 전무

1998~ (주)에이건축 재직
2006. 한국건축문화대상 분상
(하이마트 사옥)
2008~ KDI 민간투자사업 자문위원



이각표 / 회장

1988. 대한건축사협회 작품전 장려상
1991~2. 한국건축전 우수건축상 수상
1996. 고양시 건축문화상 수상
2000. 대한건축학회(작품부문) 수상



이근창 / 부회장

1994. (주)에이건축 소장
2007~ 아시아건축사연합회 회장
2000. 건설교통부장관상 수상
2007. 건설의 날 산업포장 수상



조익수 / 대표소장

2005~ 서울특별시 도봉구 건축위원회 위원
2008~ 서울특별시 도시철도공사 기술자문위원 자문위원
국토해양부 건축사자격심의위원회 위원
2008. [건축의 날] 국토해양부장관 표창 수상



문영학 / 부사장

1989~ (주)에이건축 재직
2004~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건축계획 자문위원
2008~ 행정자치부 정부종합청사 자문위원
2006. 행정자치부장관 표창



엄이건축 특징

스승이 제자에게 직접 노하우를 전수하는 도제방식으로 작업을 했던 가우디나 이를 본떠서 공방을 열었던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와 김수근처럼, 건축사들은 가르치며 일하는 방식을 통해 자신의 영향력을 확대하거나 노하우를 전수해 주고 싶어하며, 건축사사무소의 스물기

능을 강조하지만 가르치려는 스스로가 누구로부터 어떻게 배웠는지를 구체적으로 솔직하게 밝히지 않고 가르치려고만 든다면 자아도취적인 태도로 비추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 엄이건축은 가르치는 것이 아닌 스스로 배우는 기회가 많은 곳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

사내의 주요행사 및 사회기여활동

엄이건축의 회사 조직은 계획본부, 설계본부, 감리본부, 정보기술연구소로 나누어 기술과 경험을 갖춘 20여명의 건축사와 기술사를 포함한 270여명의 전문화된 기술자와 함께 일하고 있으며 가족적인 사내분위기를 갖추고 있다.

오랜 역사 만큼이나 다양한 사내동아리가 활성화되어 있는데 볼링부, 인라인이나 보드, 그리고 밴드부와 사진부 등이 있으며 20여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야구부는 2005년도에는 사회인팀 야구부 준우승의 실력도 갖추고 있다.

회사 전직원이 창립 이래 매달 천주교 나자로마을 기금을 기부하고 있으며 여직원들은 매달 정기적으로 보육원에 봉사활동을 하는 등 사회봉사활동도 빼놓지 않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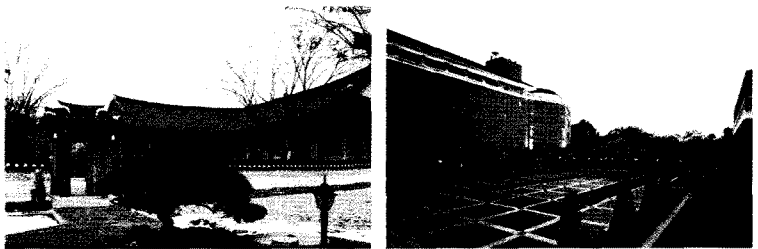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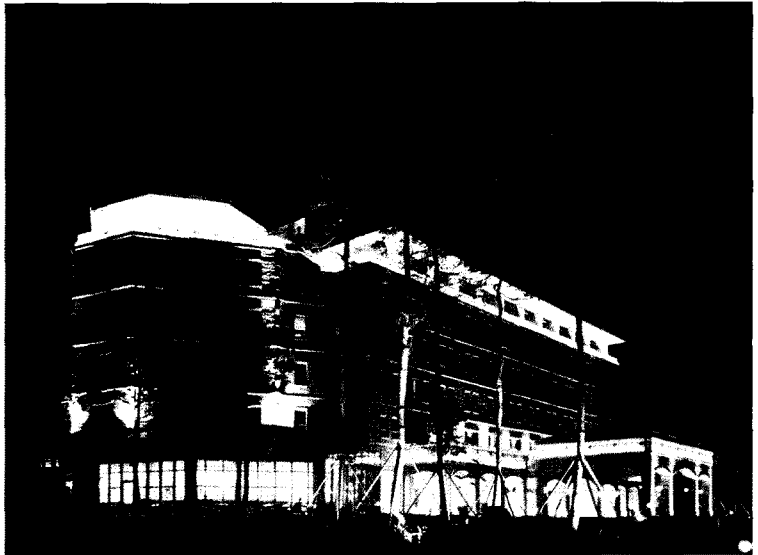
메이필드 호텔

Mayfield Hotel

■ 설계개요

대지위치 서울시 강서구 외발산동 산 53-1
 용도 관광숙박시설
 대지면적 64,794㎡
 건축면적 9,834.67㎡
 연면적 31,616.66㎡
 규모 지하 2층, 지상 6층
 외부마감 신토석 치장쌓기, Base panel, 화강석버너마감, 드라이버트
 주차대수 536대

이 호텔이 세워진 부지는 반세기 가까이 조경사업을 위해 각종 침엽수, 관상수, 화초 등이 심어져 잘 가꿔진 곳으로, 숲이 주는 자연의 아름다움이 그대로 간직된 곳이다. 이 부지에 호텔, 스포츠센터, 전통한옥음식점, 컨벤션 등이 완공된 현재의 모습은 낮고 아기자기한 건물이 주변의 울창한 숲과 어울려, 보기드문 좋은 경관을 보여준다.



하이마트 사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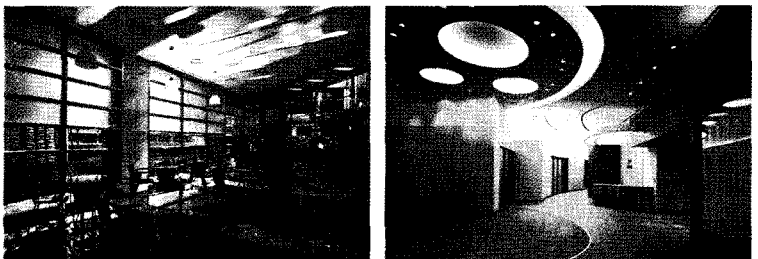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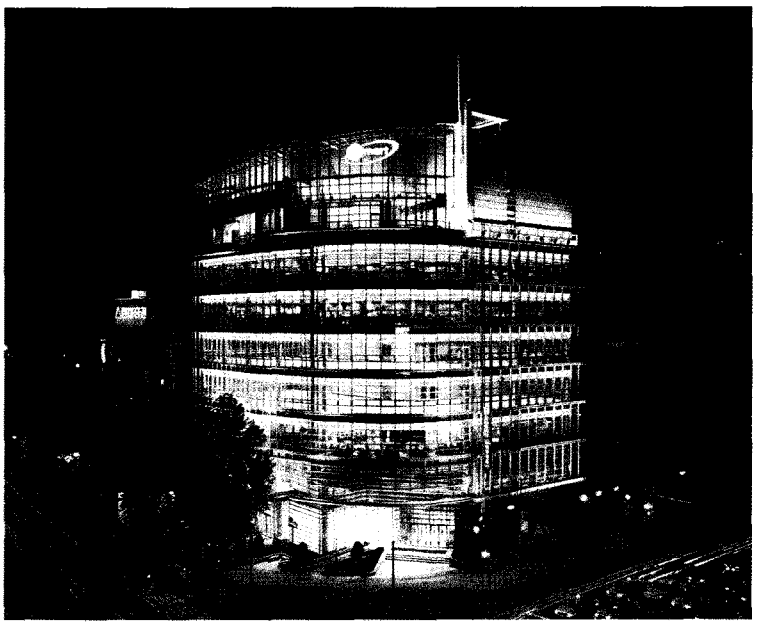
Hi-mart Headquarter Building

■ 설계개요

대지위치 서울 강남구 대치동 209
 용도 업무시설
 대지면적 2,383.8㎡
 건축면적 1,000.43㎡
 연면적 15,119.89㎡
 규모 지하 4층, 지상 8층
 외부마감 THK3 고강도 알루미늄 쉬트, THK24 투명 Low-E 복층유리
 주차대수 112대

하이마트는 잘 알려진 대로 전자제품 양판이 주업종인 회사로 저렴한 가격으로 다양한 제품을 공급해 최근 급속한 성장을 이룬 기업이다.

전자제품 유통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 이미지를 나타내기 위해 가장 현대적인 재료인 맑은 유리를 주재료로 하는 커튼월을 사용하였고, 그럼으로써 건물 내외부간의 시야교환이 이루어지는 투명성을 확보하였으며, 입면구성을 수직을 강조한 면과 수평을 강조한 면 2개의 겨가 서로 감싸안은 듯 교차시켜 비대해 보일 수 있는 매스의 느낌을 상쇄시키면서 기업과 소비자 모두의 이익추구라는 기업가치관이 반영되도록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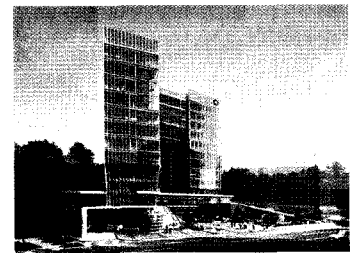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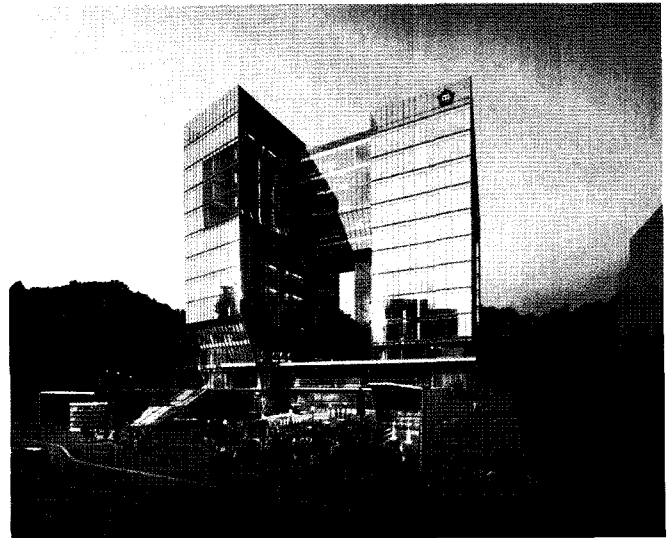


서울 가정행정법원청사 Seoul Family Administrative Court

■ 설계개요

대지위치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5-3번지
용도	업무시설
대지면적	7,020.80㎡
건축면적	3,187.66㎡
연면적	41,852.11㎡
규모	지하 2층, 지상 6층
외부마감	THK24 칼라복층유리, 화강석 물갈기, 알루미늄시트
주차대수	330대

서울 가정행정법원 신청사 건축 예정부지는 지하철 양재역에서 성남 방향으로 약 300m 떨어진 서초구민회관과 인접한 곳에 위치한다. 2011년 완공을 목표로 7천㎡ 부지에 연 면적 3만9천600㎡ 규모의 신청사가 들어설 계획이며 규모는 지하 5층, 지상 11층이다. 각층에는 재판업무 관련시설과 법원장, 판사실 등의 실들이 구획되어 있으며 주변지역의 랜드마크가 될 예정이다.



한국통신 여의도사옥 KT-Telecommunication Center, Yeouido

■ 설계개요

대지위치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8-2, 4번지
요도	업무시설, 공공용(통신)시설, 근생시설
대지면적	6,615㎡
건축면적	2,656.05㎡
연면적	96,905.14㎡
건폐율	40.15%
용적률	987.18%
규모	지하 7층, 지상 30층
외부마감	유리커튼월, THK30화강석, AL쉬트
주차대수	217대

이 건물은 1995년 10여개의 건축사사무소가 참가한 가운데 현상설계에 당선되었으나, 도중에 토지 이용 극대화를 위해 Feasibility-Study를 시행하여 재설계 되고 그 후 I.M.F. 시기를 맞이하여 예산 절감 차원에서 다시 20층, 연면적 2만 평으로 최종 마무리되는 과정을 거쳤다. 여의도 공원과 넓은 대로에서 잘 보이는 곳에 위치하고 있어서 특히 건물의 외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진행된 프로젝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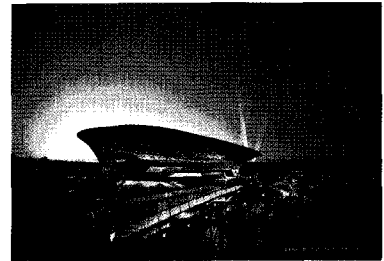
Danang Sports Hall

Iconic place of New Danang
as Green Arena

■ 설계개요

- 대지위치 베트남 다낭시 Hoa coung Precinct, Hai Chau District
Danang City, Vietnam
- 지역지구 일반상업지역, 미관지구, 방화지구, 업무지구(예정)
- 대지면적 334,000㎡
- 건축면적 94,785.84㎡
- 연면적 132,901.99㎡
- 건폐율 66.35%
- 용적률 473.93%
-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철골조

다낭은 베트남의 중앙에 있는 매력적인 도시이다. 본 프로젝트의 주제는 이러한 다낭의 자연, 바다, 강 그리고 산이다. 바다의 물결을 도시의 새로운 발전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는 관점에 기반하여 다낭스포츠 홀의 모양이 탄생하게 되었으며 바다의 물결은 새로운 세계화의 물결과 다낭의 밝은 미래를 상징한다. 홀의 앞면과 형태는 이러한 새로운 물결과 미래 지향적 정신을 표현한다. 다낭 스포츠 홀은 녹색 경기장으로서 새 다낭시의 상징이 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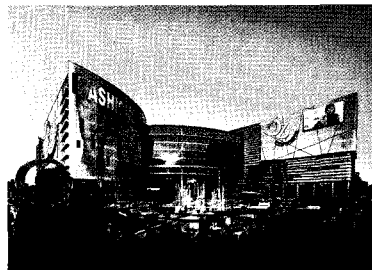
동남권유통단지 가든파이버

Garden5

■ 설계개요

- 대지위치 서울특별시 송파구 문정동
- 지역지구 일반상업지역, 미관지구, 방화지구, 업무지구(예정)
- 대지면적 41,810㎡
- 건축면적 25,037.55㎡
- 연면적 423,841.56㎡
- 건폐율 59.88%
- 용적률 583.65%
-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 규모 지하 5층, 지상 11층

성남 금광1구역은 동측으로 남한산성, 황송공원, 서측으로 대원공원이 위치하며 서측으로 탄천의 줄기가 흐르는 북사면의 급경사지다. 우리 조상들이 경사로에 자드락길을 내고 자드락터를 조성하여 집을 짓고 자연 친화적인 마을을 만들었던 것처럼 이곳에 자드락터로 집과 마당을 만들고 자드락길로 마을과 마을, 학교와 공공시설을 이어주며 다양한 생활공간을 담아냈다.





이관표

이관표 사장은 연세대학교 건축공학과에서 학부와 대학원을 마치고 서울건축을 거쳐 1989년 (주)엠앤디 종합건축사사무소에 합류한지 20년째 되었다.

그간 서울시, 정보통신부, 해양수산부, 서울시교육청 등의 심의위원과 1998, 2000, 2001, 2005, 2006년 건축대전 초대작가 활동, 2004, 2006년 한국건축문화대상에서 수상을 한 바 있다.

특히 대규모 복합상업시설, 테마파크, 대형 주차장시설 설계에 있어,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을 갖고 있어서 설계를 직접 한다.

엠이건축의 설계관

창립 이후부터 따지자면 우리 회사는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설계 회사라고 할 수 있다. 처음 창립세대가 30년을 끌어오다가 이를 이어받은 두 번째 세대가 14년간을, 그리고 다시 이를 이어받은 현재의 임원진이 15년째 이어오는 동안 마찰이나 잡음하나 없이 지내고 있는 점은 엠이건축에 몸담고 있는 직원들에게도 좋은 전통을 이어받을 수 있다는 자신감 뿐 아니라 국내외적으로도 바람직한 사례가 되리라고 생각된다. 설계회사라는 직업적 전문성으로 볼 때에도 직원중에서 누구든 능력과 자질이 있으면 혈연, 친분관계를 떠나 돈 한푼 들이지 않고 회사의 경영진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사실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다.

오래된 회사라고 해서 반드시 설계를 잘할 수 있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그러나 잡음없이 순탄하게 회사 경영진이 승계되는 전통이 분명하게 이어지고 있는 배경에는 적어도 설계철학에 관한 서로 간의 공통된 이해와 건전한 노력이 깔려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요즘 외모지상주의에 대한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다. 얼굴도 잘생기고 체격도 날씬하고 보기는 좋은데, 말하고 행동하는 격이나 품위

라고는 없어서 조금만 꺾어보아도 금세 싫증이 나곤 하기 때문이다. “이런 우리 사회의 풍조가 건물디자인에도 많이 배어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곤한다.

겉으로 보면 명품으로 휘감은 듯이 매우 화려하고 사치스러워 보이지만 실제로 살아보면 겨울에는 춥고 여름에는 더워서 아무리 냉난방을 최대한 틀어도 해결이 안되며, 환기를 해보려 해도 손바닥 만큼밖에 안열리는 창문하며, 쓸데없는 곳은 지나치게 넓고 필요한 부분은 좁고 불편하기도 하고, 온갖 장신구처럼 덕지덕지 붙여놓은 요란한 외관으로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건물이 되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고 있다.

“기능이 없는, 디자인을 위한 디자인은 미를 위한 미, 즉 허미이기에 점하나라도 기능과 무관한 것은 추한 결과가 된다” 라는 엄덕문 선생님의 철학은 이후에도 계승되어 오고 있기에 장식과 포플리즘을 따르는 1980년대의 포스트 모더니즘을 흉내낸 적도 없었고 코스메틱 페이스 리프트같은 짓도 하지않고 묵묵히 살기 좋고 편안한 건물을 만들자는 생각이 우리 회사의 공통된 생각이다.